

한국타이어, 포드에 UHP 공급확대

링컨MKT에 20인치 초고성능 타이어 장착 ... 19인치 이어 기술력 인정

한국타이어가 미국 포드(Ford)에 20인치 초고성능 타이어를 공급한다.

한국타이어는 2010년 말 출시 예정인 미국 포드의 럭셔리 브랜드 링컨MKT 모델에 20인치 초고성능 타이어(UHP) <옵티모 H426>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6월22일 발표했다.

1999년 포드와 신차용 타이어(OE) 공급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링컨MKT에 19인치 UHP를 공급한 바 있으며, 20인치 선정 과정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타이어 글로벌 OE 부문장 이병진 상무는 “포드의 럭셔리 브랜드 링컨에 OE 타이어를 공급하는 것은 한국타이어의 세계적인 기술력과 품질이 인정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타이어는 아우디(Audi), 폴크스바겐(Volkswagen), GM, 크라이슬러(Chrysler) 등 세계적 자동차 브랜드에도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6/22>